

담양, 한국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서다

‘담양 죽녹원’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 선정 문화콘텐츠 체험 등 복합문화예술 공간 ‘인기’

담양 죽녹원이 ‘한국관광 100선(2019-2020)’에 3회 연속 이름을 올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높은 인기와 명성을 재차 증명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59천여 명이 찾은 담양 죽녹원

은 마음까지 맑아지는 정량감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대숲 산책로와 함께 시가문화촌, 한옥숙박, 죽로차 다도체험 및 시서화 풍류체험, 장인각, 봉황루 전망대, 추월당 한옥카페, 이이남아트센터 등이 조성돼 쉼터 기능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체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모해 왔다.

또한, 담양 죽녹원은 3년 연속 대한민국 문화관광 최우수축제에 빛나는 ‘담

양대나무축제’가 열리는 무대이기도 하며 ‘2017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된 ‘담양 음식테마거리’와 조화를 이뤄 남도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방문객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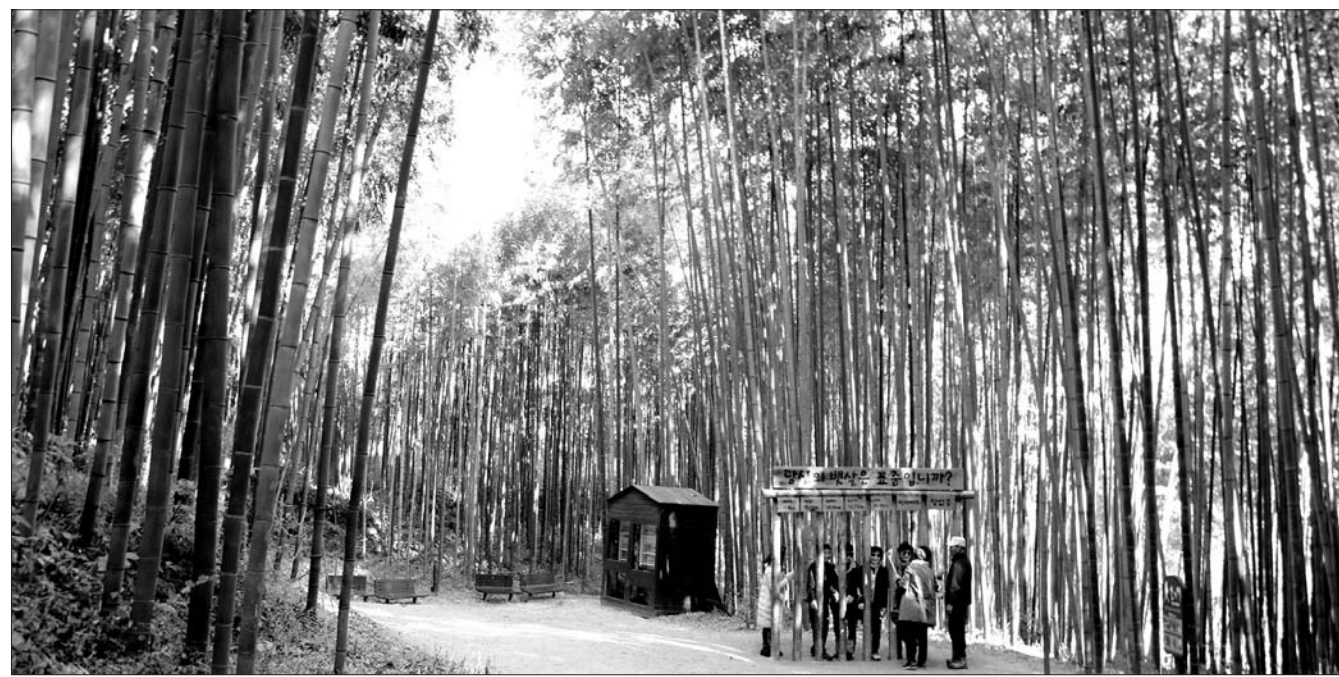
‘한국관광 100선(2019-2020)’ 선정 평가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 후보 2배수 발굴로 시작해 전문가 그룹(학계, 여행업계, 여행기자·작가, 여행 동호회)으로 구성된 정성평가와 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SNS 등의 정량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 관광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는 동시에 내국인은 물론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지를 비롯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찾고 싶은 필수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2019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참가 자격과 홍보 팸투어단 방문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며, 한국관광 100선 지도와 기념품이 전국의 관광안내소에 배포된다.

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 소개되며, 외국어로도 번역해 ‘한국관광 100선’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

/담양=강종원 기자 jlbest1@



담양 죽녹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2019-2020)’에 3회 연속 선정됐다. 사진은 대나무숲이 울창한 죽녹원의 모습.



장성군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설치한 토방.

장성 건축행정 ‘최우수’ 평가받아

2년 연속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기관에 선정

장성군 건축행정이 또 다시 전남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가 실시한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행정 합리성, 시공·철거 안전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오고 있다.

장성군은 그동안 주거 약자를 위한 다양한 건축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아 왔다. 2016년 3월 전국 최초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토방(널빤지를 간 마루와 마당 사이에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으로 만든 계단)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토방에 계단이나 오르막을 설치하는 ‘토방 낮추기’ 사업을 벌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고령의 주민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415세대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430세대에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15년부터 매월 한차례씩 군청 내에 건축사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건축물 설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오는 등 민원의 편의 또한 크게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장성군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도 주거 약자를 지원으로 군민 중심 건축행정을 구현한 데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성=정용섭 기자 jjs@

영광, 여성 갱년기 상담실 운영 40세부터 60세 이하 여성 대상

영광군은 2019년부터 갱년기 증상이 있거나 예방이 필요한 40세부터 60세 이하 여성을 위한 갱년기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삶의 전환기라는 큰 의미를 지닌 이 시기는 호르몬 및 여러 신체 기능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보건소는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해 혈압, 혈당,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스크리닝을 통한 척도 측정 후 결과에 따라 관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과 연계 전문상담과 치료 유도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갱년기 증상에 대한 올바른 예방법과 건강관리법 교육 등 여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 갱년기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화순 국화향연’ 전남도 대표 축제 선정

군 축제 중 최초 선정

‘화순 국화향연’이 화순군 축제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전남도 대표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축제 심의 결과 전남도 대표 ‘우수’ 축제로 최종 결정됐다. 화순군은 우수 축제 선정에 따라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에 앞서 ‘화순 국화향연’은 전라남도 축제 심의위원회 결과, ‘2019년 전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됐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8 화순 국화향연’에 관광객 52만여 명이 찾아 화순 대표 축제로서 위상을 굳혔다.



작년 개최된 화순 국화향연 축제장 입구 모습.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국화향연 축제는 생산 유발효과 405억 원, 부가가치 171억 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에도 이바지했다. 그야말로 대박이 난 국화향연은 관광객의 호평이 끊이지 않은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는다.

/화순=윤규진 기자 jin2001@

장흥, 지역특화림 조성사업에 선정

사업비 10억 원 확보

장흥군은 지역별, 품목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교 우위의 산림자원 기반조성을 위해 2019년 전남도 지역 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흥군은 남부권에 체내 독성물질 배출 등 산림 6차 산업화의 선두주자로 각광받으며 나무인삼이라 불리는 황칠나무를 규

모하해 연중 공급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북부권에 각종 영양소와 심장병 예방 등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맞춰 견과류 식용호도를 식재해 주민소득에 기여할 계획이다.

황칠특화림 42ha, 견과류 웰빙숲 9ha 조성을 목표로 산주들과 사전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반영을 토대로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3월에 착수하기 위해 현장지도 등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